

2020

선거 방송 언어 지침서



선거 방송 언어 지침

- 타당한 근거 없이 예측·해석·주장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정보를 왜곡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표현해야 한다.
- 특정 개인·집단·계층·종교·지역 등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인용 시 말한 주체나 출처를 밝혀야 한다. 다만, 취재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인용 내용을 임의로 누락, 첨언, 환언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예) 의뢰 기관, 조사 기관, 조사 방법, 응답률, 질문 내용, 조사 기간, 오차 한계 등
- 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하거나 우열을 묘사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개표 결과에 대한 용어를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예) 우세, 경합, 혼전, 확실 등
- 고성, 비아냥거림, 삿대질 등의 부적절한 어투나 몸짓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끼어들기, 말 자르기 등 말하기 규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상대를 비하, 조롱, 위협하는 인신공격성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과장된 표현, 극단적 표현, 감정이 담긴 주관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비속어, 욕설, 인격 모독 표현, 무례한 표현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성별·연령·학력·직업·외모·장애·계층·지역·인종 등과 관련하여 편견을 조장하거나 조롱·모독하는 차별적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적절한 해설 없이 전문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외국어, 약어 등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신조어, 유행어, 은어 등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보편적 가치관, 윤리적·문화적 관습에서 벗어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선거 방송 언어 개선 필요 사례

1. 고성, 삿대질, 비아냥거리는 표정 등의 부적절한 어투나 몸짓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개선 필요 사례 ①

(상대방 후보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간첩단 사건을 갖다가 수사를 ○○○ 국정원장 해임시키면서 수사를 막 하느 그런 사건입니다. ○ 후보가 비서실장할 때!”

(2017년 JTBC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 2017. 4. 25.)

🔍 개선 방향

공식성이 높은 선거 방송에서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감정이 격앙되기 쉬운 선거 토론 방송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견되는데 삿대질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은 토론 예의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 개선 필요 사례 ②

“그 연구 과제가 4억 천만 원 들여 가지고 하신 과제가 삼겹살 구울 때 미세먼지 얼마나 나오느냐. 저는 정말 코미디를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2018년 지방선거 KBS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2018. 5. 30.)

🔍 개선 방향

상대방 후보의 의견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비아냥거리는 표정과 말투로 말하였습니다. 과도한 고성이나 고함은 물론 예의에 어긋나는 말투와 표정 등의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 역시 선거 방송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고자 할 때에도 선거 방송의 공식적 속성과

시청자들이 느끼는 불쾌감 등을 고려하여 예의를 갖추어 표현해야 합니다.

【참고】「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7조(품위 유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8.>

1.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고성·고함,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 또는 음주 출연자의 불쾌한 언행 등의 표현
5.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선거 방송 언어 개선 필요 사례

2. 말 자르기, 끼어들기 등을 하여 말차레 규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

🔍 개선 필요 사례 ①

○○○ 후보: 아니, 아까 질문을 하셨잖아요. 30만 개,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하세요.

사회자: ○○○ 후보는 조금 뒤에 일대일에서.

○○○ 후보: 3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어도 상관없냐고 하시니깐 아까, 일자리가 줄더라도 남아 있는 일자리의 소득이 늘어나면 상관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MBC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2018. 6. 5.)

🔍 개선 방향

엄격한 규칙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선거 토론 방송에서 상대의 말을 자르고 끼어들어 자신의 말만 이어가는 행위는 대화 예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평한 발언 기회와 시간을 방해하여 선거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시키기도 합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서 토론을 해야 합니다.

🔍 개선 필요 사례 ②

사회자: ○○○ 후보, 지금 사회자 말씀 지금 듣고 계십니까? 지금 ○○○ 후보께서 12초 남으셨습니다.

○○○ 후보: 저한테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하십니까? 다른 △△△ 후보, 아까 △△△ 후보 시간

오버할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더니.

(MBC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2017. 4. 28.)

🔍 개선 방향

사회자의 제지에 대해 오히려 지나치게 엄격하게 시간을 통제한다는 항의를 하며 토론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참고】「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①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9.)



선거 방송 언어 개선 필요 사례

3. 타당한 근거 없이 예측·해석·주장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개선 필요 사례 ①

“전임 정권에서 거의 정부에서 다 ○○ 주식을 다 해 줬죠. 그 바람에 ○○이 지금 튼튼한 회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MBC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2017. 4. 28.)

🔍 개선 방향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면서 타당한 근거 없이 상대방 후보를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선거 토론 방송에서 상대방을 비판하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 개선 필요 사례 ②

“○○○ 그러면 사면은 △△△ 후보가 두 번이나 해 줬어요? 맨입에 해 줬어요? 사면 두 번 해 줬잖아요. 한 정부에서 사면은 ○○○이 두 번 해 줬는데 나는 ○○○이를 몰라요. 그런데 ○○○이를 한 정부에서 △△△ 후보가 사면을 두 번 해 줬잖아요. 왜 두 번 할 때 맨입에 해 줬습니까? 그걸 두 번 해 줬잖아요. 그 두 번을 왜 해 줬어요?”

(MBC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2017. 4. 23.)

🔍 개선 방향

상대 후보의 과거 이력을 비방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타당한 근거 없이 주장하고 있

습니다. 주장할 때는 근거를 들어 입증해야 할 책임이 말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참고】「선거 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2016. 12. 22. 개정)」제 8조(객관성) ② 방송은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여러 종류의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12조(사실 보도) ① 방송은 선거 방송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거 방송 언어 개선 필요 사례

개선 필요 사례 ①

4.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예) 의뢰 기관, 조사 기관, 조사 방법, 응답률, 질문 내용, 조사 기간, 오차 한계 등

“무상 시리즈를 했더니 경기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통계는 거꾸로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는 이렇게 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의 기업체 수, 업체 수도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MBC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2018. 6. 5.)

개선 방향

상대방 후보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통계 자료를 인용하면서 그 출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론 조사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선거 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에 따른 항목을 모두 제시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해당 통계에 대한 출처 등은 명확하게 밝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선 필요 사례 ②

“저희들이 우선 227개 구역에서 전체적인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박빙 지역이라 생각되는 곳을 서너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 사이즈는 약 500명 정도 됐고요. 표본 오차는 ±4% 가량이 되었습니다.”

(MBC 선택 2000, 2000. 4. 13.)

개선 방향

개표 방송에서 출구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온전하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론 조사의 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제1호부터 제12호

까지 필요한 정보를 모두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 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참고】「선거 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2016. 12. 22. 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① 방송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이하 “여론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1. 9., 2014. 12. 24., 2016. 3. 3.>

- | | | |
|---------------|-------------|-------------------|
| 1. 조사의뢰자 | 2. 조사기관·단체명 | 3. 조사대상 |
| 4. 조사일시 | 5. 조사방법 | 6. 표본오차 |
| 7. 질문내용 | 8. 응답률 | 9. 표본의 크기 |
| 10. 피조사자 선정방법 | 11. 조사지역 | 12. 기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사 또는 다른 언론 등에서 이미 공표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조사의뢰자 및 조사일시만을 밝혀 방송할 수 있다. <신설 2014. 1. 9., 2016. 12. 28.>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 ①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기간 및 오차한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여론의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통계조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 9., 2014. 12. 24., 2015. 10.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사 또는 다른 언론 등에서 이미 공표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의뢰기관 및 조사기간만을 밝혀 방송할 수 있다. <신설 2014. 1. 9., 2016. 12. 22.>

③ 방송은 여론조사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 9.>

④ 방송은 사회적인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에 대해 시청자의 의견을 조사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9.>

⑤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전체 질문지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0. 8., 2016. 12. 22.>

선거 방송 언어 개선 필요 사례

개선 필요 사례

개선 방향

이렇게 하면 좋아요!

5. 개표 결과에 대한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 해야 한다.

예 우세, 경합, 혼전, 확실 등

“○○○ 후보는 진보정당 후보로는 5·16 이후 처음으로 제도권 진입이 확실해 보입니다. 엠비시(MBC) 예측 시스템으로는 지금 당선이 확실시되어 보이는데 감회가 남다르리라 생각합니다.”

(MBC 국민의 선택, 2000. 4. 13.)

출구 조사를 활용하여 선거 결과를 예측하면서 위와 같은 표현으로 해당 후보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개표가 진행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표현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확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개표 방송 시에 사용하는 우세, 경합, 혼전, 확실 등의 표현은 근거가 되는 통계치를 사전에 명확히 밝히거나 개표 용어를 사용하는 시기를 미리 고지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저희가 유력이라고 알려드리면요 당선 확률이 95% 정도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확실이라고 알려드리면 당선 확률이 이제 99%까지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시겠지만 이제 확정, 100%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당선 도장을 찍어드리겠습니다.”

(SBS, 2018 국민의 선택, 2018. 6. 13.)

☑ “후보자에서 당선자가 되는 순간, 디시전 케이(K)의 유력, 확실, 당선 판정의 근거 궁금하시죠? 유력과 확실은 통계상으로 정규분포와 지역별 추세 등을 분석한 후 결정이 되고요. 당선은 개표가 끝나지 않았지만 2위 후보에게 모든 표를 몰아줘도 순위를 뒤집을 수 없는 경우, 즉 매직넘버가 0이 되는 순간 당선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KBS, 2018 지방선거선택 대한민국 우리의 미래, 2018. 6. 13.)

【참고】「선거 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2016. 12. 22. 개정) 제 12조(사실 보도) ② 방송은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실제결과와 예측이 다를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정정보도하여야 한다.

선거 방송 언어 개선 필요 사례

6. 인용 시 말한 주체나 출처를 밝혀야 한다. 다만, 취재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개선 필요 사례

“지금 최저 임금이 급격하게 올라서 케이디아아이(KDI)에서 일자리가 30만 개가 줄어들지 모른다고 하는데 그래도 상관 없다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MBC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2018. 6. 5.)

🔍 개선 방향

일자리 정책을 토론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인용하면서 그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책 통계 자료를 인용하였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참고】「선거 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2016. 12. 22. 개정)」제17조(출처명시) 방송은 선거와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016. 12. 22. 개정)」제15조(출처명시) ① 방송은 직접 취재하지 않은 사실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선거 방송 언어 개선 필요 사례

7. 인용 내용을 임의로 누락, 첨언, 환언*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환언: 앞서 한 말에 대하여 표현을 달리 바꾸어 말함.

🗣️ 개선 필요 사례

“○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나는 화형당하겠네요.”

(MBC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2017. 5. 2.)

🔍 개선 방향

타인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다소 과장된 언어로 환언하고 있습니다. 인용을 할 때에는 본래의 발언 내용을 왜곡하거나 다른 내용을 첨언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가 올바르게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언어 가이드라인(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가. 시사·보도 14)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거나 번역하여 방송할 때는 발언 내용을 왜곡·첨언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언 내용을 누락·편집할 때는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가 올바르게 담길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선거 방송 언어 개선 필요 사례

개선 필요 사례

8. 상대가 속한 집단을 비하, 조롱, 위협하는 인신공격성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후보가 오히려 △△당스럽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오렌지 색깔 정당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MBC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2018. 6. 5.)

개선 방향

토론 상대방이 속해 있는 집단인 특정 정당을 조롱하는 듯한 ‘오렌지 색깔 정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특정 집단의 견해나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은 선거 토론 과정에서 필요하지만 사안이나 화제와 무관하게 특정 집단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참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016. 12. 22. 개정)」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⑤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 9.>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016. 12. 22. 개정)」제20조(명예훼손 금지) ① 방송은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거 방송 사례 참고 문헌]

방송위원회(2003), 제16대 대통령 선거 방송 심의백서.

방송위원회(2006), 전국동시지방 선거 방송 심의백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0), 선거 방송 심의백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0년 재·보궐선거.

박사라(2003), 제16대 대통령후보 초청 TV합동토론회에 나타난 후보자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관한 연구.

전영란(2007), TV토론에 나타난 선거 캠페인 修辭에 관한 분석.

조성겸(2001), 개표방송의 발전을 위한 제안.

[선거 방송 사례 참고 방송 프로그램]

2018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제1차), 2018. 5. 30.

2018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제2차), 2018. 6. 7.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제1차), 2018. 5. 29.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제2차), 2018. 6. 5.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제1차), 2017. 4. 23.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제2차), 2017. 4. 28.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제3차), 2017. 5. 2.

※ 이 지침서는 국립국어원의 2018년 방송언어 개선 연구(연구 책임자: 박재현)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선거 방송 언어 지침서

발행일	2020년 3월 31일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기획·편집	김미현 학예연구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인쇄	더크리홍보 주식회사

*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국어원에 있습니다.

